



개인차로 운구... 가는 길도 서러운 추자섬

유일한 장의차 고장... 수 년째 방치 끝 폐차 “장례시설 있는 제주시로 가려면 반드시 필요” 제주시 “내년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제주 추자섬 유일의 ‘장의차량’이 무관심 속에 결국 폐차되는 운명을 맞고 있다. 노후화로 수 년째 방치되다 결국 폐차되는 것인데, 주민들은 공여지책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해 운구에 나서고 있다.

6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추자도 장의차량이 조만간 폐차될 예정이다. 제주시가 추자면에 전달한 해당 장

의차량은 2005년에 생산된 것으로, 10여 년 전 추자도에 들어와 운영되다 수 년 전 고장으로 멈춰섰다. 운영 기간이나 고장 시기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차량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힘들어서다.

장의차량 운영 당시에는 마을 청년회가 고인을 모시고 제주시내로 나갔다. 추자도에는 장례시설이 없

불가피하게 배를 타고 제주시로 넘어가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 년 전 장의차량이 고장 나면서 주민 개인차량을 이용해 고인을 제주시내로 모시고 있다. 전문 장의차량이 아니다 보니 고인의 마지막 길이 더 서글프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추자면 관계자는 “장의차량은 공업사에 있는데, 곧 폐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추자도에는 장례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규 장의차량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 어르신들 대부분은 건강이 악화될 경우 미리 제주시내 병원 혹은 노인

시설에 입소한 뒤 돌아가신다. 하지만 1년에 한 두 분은 마을에서 임종을 맞는다”며 “언제까지 일반차량으로 고인을 운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도 추자면 예산안에 신규 장의차량 도입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라며 “해당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제주시청에서 열린 안동우 제주시장의 ‘찾아가는 소통의 날’ 당시 추자면 주민들은 안 시장에게 신규 장의차량 배치를 건의한 바 있다.

송은범기자



제2공항 찬·반 입장차 여전히 ‘평행선’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성명 추진연합은 조속한 추진 촉구

제주 제2공항 찬·반단체의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으로 나타났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6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즉시 제2공항 철퇴를 선언,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제주도민에게 합리적·객관적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국토부는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공항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송은범기자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같은 날 제2공항 추진연합은 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제2공항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반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한 정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

추진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와 환경부를 압박하면서 제2공항에 대한 정책추진을 가로 막았다”며 “환경부와 국토부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 향후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송은범기자



광치기해변 관광객들 6일 서귀포시 광치기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코로나 지속 확산... 추가 확진 12명

확진자 대부분 가족·친척 등 접촉 후 감염

제주지역에서 가족, 친척 등 확진자와 접촉한 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6일 양일 간 각각 6명씩, 총 12명(제주 738~749번)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74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달 들어 35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6명 중 4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738·739·740·742번)이며, 나머지 2명(741·743번)은 각각 타 시도 거주자로 확인됐다. 또 6일 추가 확진된 6명(744~749번)은 모두 도내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738번과 739번 확진자는 지난 4일 확진된 734번 확진자와 각각 가족·친척 관계다.

제주 740번 확진자는 688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741번 확진자는 외국인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관광 목적으로 입도했다. 741번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난 5일 제주보건소에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742번은 739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742번·739번·738번은 가족 및 친척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다혜기자

743번 확진자는 서울지역 입도객이다. 743번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30일 오후 항공편을 이용해 서울에서 제주로 왔다.

지난 4~5일 동선 정보가 공개된 ‘메뚜리광장’, ‘전원콜라텍’, ‘파티24’ 방문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현재까지 총 561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파티24시 관련 2명이 확진됐다. 나머지는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 5일 확진자 중 1명이 서귀포의료원 제2분향실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동선을 공개했다. 확진자는 이달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은범기자

‘메뚜기 자세’ 가혹행위 예비역 해병 실형 면해 제주지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법정에서 메뚜기 자세까지 펼치며 참회했던 해병대 예비역 병장이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해졌다.

A씨는 해병대 병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메뚜기 자세를 시키거나, 몸을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한 뒤 신체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뚜기 자세는 머리와 양쪽 팔꿈치를 땅에 댄 상태로 다리는 책상 위로 올리는 것인데, 앞선 재판 과정에서 장 부장판사가 메뚜기 자세에 대해 묻자 A씨는 법정에서 직접 자세를 시연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코카인과 헤로인, 대마초를 주문한 뒤 항공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고, 이중 일부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진술에 나선 김씨는 “지난 몇개월 동안 (범행들) 빼아프게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아버지가 방청석에서 일어나 “아들 사춘기 때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다. 데리고 키우면서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겠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했고, 피고인석에 앉은 김씨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다.

장 부장판사는 “곧 아버지님이다. 피고인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 고민 좀 해봐라”면서 선고기일을 다음달 11일로 잡았다. 송은범기자

“교육 잘못 시켰다. 다시 가르치겠다”

마약 밀반입 30대 아들 위해 아버지, 재판장에 선처 호소

아버지님을 앞두고 제주 법정에서 못한 아들을 선처해달라는 부정(父情)이 발현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코카인과 헤로인, 대마초를 주문한 뒤 항공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고, 이중 일부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진술에 나선 김씨는 “지난 몇개월 동안 (범행들) 빼아프게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아버지가 방청석에서 일어나 “아들 사춘기 때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다. 데리고 키우면서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겠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했고, 피고인석에 앉은 김씨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다.

장 부장판사는 “곧 아버지님이다. 피고인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 고민 좀 해봐라”면서 선고기일을 다음달 11일로 잡았다. 송은범기자

일부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진술에 나선 김씨는 “지난 몇개월 동안 (범행들) 빼아프게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아버지가 방청석에서 일어나 “아들 사춘기 때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다. 데리고 키우면서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겠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했고, 피고인석에 앉은 김씨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다.

장 부장판사는 “곧 아버지님이다. 피고인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 고민 좀 해봐라”면서 선고기일을 다음달 11일로 잡았다. 송은범기자

“불법영업 드림타워 쇼핑몰 이용 말자”

소상공인연합회 6일 기자회견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는 무허가 불법으로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관광개발과 같은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태가

확산되면 제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기반이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 도민들도 무허가 영업을 하는 드림타워 쇼핑몰과 롯데관광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며 “제주시장 역시 불법 영업을 방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에 영장 신청을 신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2022년 2월달 식재용 탱자묘 1년생

사전분양계약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상품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모듬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 아미انس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모듬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듬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상품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